

CFI도민거버넌스 세부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

- 에너지효율화분과

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‘도민거버넌스’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. 코로나19로 인하여 100여명의 참여 도민을 5개의 분과로 나눠 상반기 중 각각 1차 회의 진행

□ 에너지효율화분과

- 일 시 : 2020. 6. 16.(화) 16:00~17:30
- 장 소 : 제주부동산협동조합 회의실(3층)
- 참 석 자 : 에너지효율화분과 10명 및 에너지공사 관계자 2명
- 주요의견
 - 도민포럼에서 서귀포 분과가 있어서 좋았는데,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음. 그리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음. 교육·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음. (답변: 서귀포에서 에너지 특강 형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음.)
 - 최근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, 2030년까지 풍력,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한다는 계획이 실현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음. 에너지정책에 관한 부분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회의나 설명회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음.
 - 도청은 2014년도부터 태양열·태양광으로 사용한다는 안내를 본 적이 있다. 제주도는 정책에 관해 어떤 부분을 시행했는지, 시행 후 대체에너지 생산량과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대체량이 되었는지, 실사용량, 절감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

각한다. 자료를 제공해 달라.

- 에너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.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, 지리적 제약을 해결 위해 장소를 변화 준다든지, 회의 전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회의의 질과 집중도를 올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. 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많은 도민참여유도와 2030년까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.
-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면 함. 온&오프라인을 모두 생각했으면 하고,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도민이 참여해서 큰 도움이 될까 의문. 유튜브, SNS를 통한 카본프리 정책을 홍보. 에너지에 대한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 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.
- 홍보채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좋겠음. 요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면 좋겠고, 한시적인 신문, 라디오, 방송 등이 아니라 길게 오래 CFI가 완성되는 날까지 홍보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람.
- 에너지효율화 교육은 제주의 1000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. 그로인해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점을 살려 개인주택, 다세대주택 등에 제주도 조례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,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을 생각해야 함.
- 지역 초·중·고·대, 일반인들이 직접 제작하여 올리는 영상(에너지교육)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.
- 단기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.
-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교육이나 현장학습이 중요. 청소년 환경 동아리를 육성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
○ 현장사진



‘20.06.16. 에너지효율화분과 1차회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나머지 도민 거버넌스 세부분과 1차회의 개최 예정(청소년 분과)
-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참가자 공유(온라인 소통공간 개설)
- 신재생e 분과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2차 회의 추진
(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방안 : 개발이익 공유방법과 범위 등)

※ 붙임. 참가자 의견서.